

1 Samuel 14:1~23, The marks of true faith 삼상 14:1~23, 참 믿음의 면모

As Paul famously said in 2 Corinthians 5:7, we as Christians live by faith, not by sight. Living by faith is the key life principle for all Christians. Then the question is... What does it actually mean to live by faith?

Frankly speaking, there are times when we have a vague understanding of it. I'm going to talk about two of the most common examples. Example 1: "Christian faith" is often understood as a means to get what I want. So people might say, "If I just have enough faith, God will bless me with what I want. So if I want a better job with a higher income, and if I just have enough faith, God will give it to me."

Example 2: Others think living by faith is all about doing religious things. As long as I go to church on Sundays, give some money in the offering, and have my name on a church membership list—then that's what it means to live by faith.

But is this truly the way of living by faith? What does it really mean to live by faith? Well, I believe Jonathan, from today's passage, provides a great example of living by faith. So, based on Jonathan's example, we are going to explore the following three aspects of real faith.

1. Real faith has content. Real faith isn't about believing in a vague idea—it has clear, defined content.
2. Real faith is a faith that goes against all odds. In other words, it is a faith that transcends our circumstances and reasoning.
3. Real faith results in active action!

사도바울이 고후 5:7 절에서 말씀한 유명한 명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모른 채, 모호하게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에게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직장과 부를 원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요구를 들어 주실 거야!"

혹은, 그저 외부적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일정의 헌금을 내고, 등록 교인으로 내 이름이 명단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삶의 모습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의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면모를 살펴보려 합니다.

1. 참된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기반을 둔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2. 참된 믿음은 모든 역경을 거스르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상황과 이성적 사고를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3. 참된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1. Faith has content.

If we take a moment to look at the context of today's passage, we saw in the previous chapter that Israel was in serious trouble. As David shared with us last week, the Israelites were massively outnumbered—the enemy had thousands of chariots, horses, and soldiers, all equipped with far superior weapons. On the other hand, Israel didn't even have proper weapons & the situation looked absolutely hopeless. For this reasons, the Israelite soldiers were deeply discouraged, and many of them had even run off to hide from the enemy.

In the face of this difficult challenge, what really stands out in today's passage is the contrast between Jonathan and his father, Saul. I want to describe this contrast as the difference between counterfeit faith and real faith:

Take Saul, for example. On the surface, he seems religious—it looks like he is honouring God, seeking God's help. But when trouble hits, he remains passive, which is a good indication that his faith is rather superficial.

Jonathan, on the other hand, shows us what real, faith looks like. And when we take a closer look at his response, the first thing we see is that his faith had content—it wasn't vague or abstract. His faith in God was grounded in a specific understanding of who God is.

And we see a good example in verse 6. ““Come, let us go over to the garrison of these uncircumcised.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work for us, for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by many or by few.”

1. 믿음의 내용.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전 장에서 이스라엘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데이빗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나누셨듯이, 이스라엘의 적은 수천, 수만의 병거와 말, 병사들을 보유하고 훨씬 큰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고, 수적으로도 크게 열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병사들은 크게 낙담했고, 많은 병사가 적을 피해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의 대조입니다. 저는 이런 대비되는 모습을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의 대조라고 묘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선 사울을 예로 보면, 표면적으로 그는 꾀나 종교적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직면할 때 그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는 그의 믿음이 피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위기에 대한 그의 대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반한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예로 6 절을보면 요나단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로 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의 성경)

When Jonathan says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work for us”. This almost sounds like, he was not sure if the Lord would help him. But he is not saying “may be” as an indication of his doubt and uncertainty. But this is to indicate his greater anticipation of God. He is like saying, “Since God is so Great and I am so small, I cannot fully comprehend God and therefore there is a lot, I don’t know about God’s plan. But who knows? God may do greater things that go beyond my thoughts and expectations!”

And we learn that his anticipation is grounded on the conviction that, God alone is able to save. So if we again look at the end of verse 6, he says,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by many or by few." Here we see the clear content of his faith: He believed that God alone is almighty. He believed that God alone is able to save. He believed that salvation is not something people can achieve on their own, but entirely depends on God, who alone is powerful and gracious.

So, here, the first important mark of a real faith is that it must have content. A genuine faith must begin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who God is.

While we claim to have faith in God, there are times when our faith is vague and unclear, aren’t there? For example, sometimes we think that having faith in God is simply about believing in His existence. At other times, we believe in a version of God that is shaped by our own desires and needs.

But I want to point out how misguided and potentially dangerous this kind of faith can be. For example, in 2011, when I was in Sydney, a controversial advertisement appeared on large billboards and buses across the city. It was posted by an Islamic group and read: “Jesus, a prophet of Islam.”

여기서 요나단이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아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보다는, 큰 기대감을 반영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풀어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지만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마도 내 모든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행하 실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런 기대감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6절 후반을 다시 보면 그는 이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다!” ...결국 여기서 요나단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며, 구원이란 사람 자신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의 면모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에 기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모호하고 불분명할 때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던가, 혹은 우리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형성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잠재적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2011년 제가 시드니에 있었을 때, 시드니 전역에 있는 대형 광고판에 한 논란이 되는 광고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한 이슬람 단체에서 제작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 이슬람의 선지자”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they, too, believe in the existence of Jesus. But here's the catch: They deny that Jesus is God—claiming He was merely one of the prophets.

We see this pattern in many other cult groups as well. While they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Jesus, they deny His deity. In doing so, they essentially believe in a version of God shaped by their own desires and thoughts. Can we say they have genuine faith in God? The answer is, clearly, no.

Paul writes in Romans 10:17: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This tells us that genuine faith must begin with hearing the Word of God—it must be rooted in truth. In other words, true faith starts with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 message of Christ. There must be a clear and accurate content to our faith. Without it, what people call “faith” may actually be belief in a god of their own making.

So, I really hope that this could be an opportunity to examine our faith. What is the content of your faith? What does it actually mean for you to have faith in God? And is that faith based on your imagination and thoughts, or is it based on the Word of God alone?

2. Faith That Goes Against All Odds

Another important aspect of Jonathan's faith is that it goes against all odds. It is a faith that goes beyond our circumstances and reason. When Jonathan believed that God alone is powerful to save, we see his bold plan and actions to fight against the enemy. This was a courageous move that defied all the odds and challenges he was facing.

저는 이 광고를 보고 무슬림 사람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하나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냄 받은 아들이자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 다른 이단 종교를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형성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17 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진리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고,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자신이 만든 우상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당신의 상상과 생각에 기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가요?

2.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요나단 믿음의 중요한 또 다른 면모는, 모든 어려움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과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적을 대적하는 그의 담대한 계획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에 동화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였습니다.

In specific, as I mentioned earlier, the Israelites were greatly outnumbered, and the enemy was equipped with far better weapons. The fact that many of the Israelite soldiers ran away to hide from the enemy reflects the hopeless situation they were in.

Another stunning detail we see in today's passage is that, as shown in verse 17, Saul and his 600 men had no idea Jonathan had slipped away from the camp. How could over 600 men be completely unaware that they were missing Jonathan, the king's own son? One commentator suggests this shows just how discouraged and defeated they were—that they couldn't even post proper guards while at war.

Like in this example, when such trouble overwhelms us, our natural tendency is to panic, lose hope, become pessimistic, and give up. But unlike others, Jonathan was not swept up in the panic. His faith, however, goes beyond this difficult situation.

You know, I personally think this really gives us a chance to reflect on what it means to live a life of faith in this world. Living in a broken world means that living a life of faith isn't always going to be easy. It's not like once we decide to follow Jesus and live by faith, everything is just going to magically fall into place. In fact, 2 Timothy 3:12 tells us that an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This means there will be challenges when we try to live by faith. And when we face such challenges, the temptation is often to compromise our faith and simply go with the flow.

But I hope Jonathan's example of faith can give us a valuable lesson on what it means to live by faith. Despite the serious trouble he faced from the enemy, his was a faith that defied the enemy's threat—one that could have otherwise swamped him with panic and caused him to lose confidence in the Lord.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적보다 훨씬 적은 수였고, 그들의 적은 훨씬 더 우수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인이 적을 피해 숨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17 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과 그의 군사 600 명이 요나단이 진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6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 사라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 주석가는 이에 설명하기를, 전쟁 중에 제대로 된 보초를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낙담하고 패배감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 또한 본능적으로 당황하고, 희망을 잃고, 비관적으로 변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믿음은 이런 절망감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섭니다.

저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최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12 절을 보더라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저 믿음을 타협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적의 큰 위협 가운데, 공포에 휩싸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도, 그의 믿음은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3. Faith results in action.

Lastly, we learn that genuine faith leads us to take proactive action. As mentioned earlier, one of the interesting features we see in today's passage is the contrast it draws between Saul and Jonathan. And we really see a contrast between the spiritual apathy of Saul and the faith-driven action of Jonathan.

If we look at Saul, for example, he seems almost religious, and it appears he's honouring God by seeking his help. When you look at verses 2~3 for example, while Saul was staying in the outskirts of Gibeah, it mentions a priest, whose name was Ahijah. And it tells us that, he was wearing an ephod. This means he was performing religious duties as a priest. He could particularly mean that they were seeking the Lord's will in the midst of their trouble. So this almost seems godly, as they seek God's help and his will, in the trouble.

However, when we learn who Ahijah was, it becomes clear that this is an example of superficial, formalistic faith. Ahijah was the great-grandson of Eli, and Eli's family had been marked by corruption and God's judgment. Their lineage had been rejected and cursed by the Lord. The fact that Saul was relying on Ahijah's advice shows that he had a form of godliness—appearing religious—but it was superficial faith. It was merely outward and ritualistic. As a result, when real trouble came, he was overwhelmed by fear and remained passive.

In contrast to Saul's passive and superficial faith, Jonathan's trust in God leads to bold and decisive action. His faith is not just a formality—it moves him to take initiative and rely on God's power in the face of danger.

3. 행동하는 믿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뚜렷한 대조입니다. 사울의 영적인 안일함, 무관심,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을 보면,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에 머무르고 있었고,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겉모습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히야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야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부패한 가문이었습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제사장직은 끊기고, 그 가문은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런 가문 출신의 제사장, 아히야의 조언을 사울이 따랐다는 것은, 사울이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믿음과는 달리, 요나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겉모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In verses 8–10, we see that Jonathan first seeks to discern the will of the Lord—whether it is the right time to engage the enemy. He reveals himself to the Philistines, and if they invite him to come up and fight, he takes it as a sign that the Lord will help Israel.

As the passage continues, the enemy does indeed invite them to fight. Once Jonathan discerns that it is the right moment to attack, it's striking to see what he declares at the end of verse 12: “The Lord has given them into the hand of Israel.” He uses a perfect verb form, indicating a completed action—this highlights his absolute certainty in God's victory.

Again, we see the content of Jonathan's faith. He is fully assured that God will save Israel, and this conviction leads him to take bold initiative and courageously engage the enemy. This really shows us that genuine faith always leads to action.

There are times when we use “living by faith” as an excuse for laziness, aren't there? Sometimes, we treat it as a way to escape from reality and avoid our responsibilities.

When I was reading David Bosch's book *Spirituality of the Road*, he points out the example of prayer. He writes, “When we have had a serious problem, we often say, ‘I have prayed about it and now I leave it in God's hand.’ This appears to be very godly and submissive, but it may in fact be just a cover-up for our unwillingness to face realities.”

그 예로, 8~10 절을 보면 요나단은, 우선 요나단은 언제 공격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적 앞에 나타났을 때, 적들이 요나단을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와서 싸우자고 한다면, 이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적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을 때, 실제로 적들은 요나단에게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와서 싸우자고 도발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절한 때임을 확신합니다...그러면서 12 전 후반에서 요나단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여기서 “넘기셨느니라”라고 말할 때, 요나단이 사용한 동사는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요나단의 그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고,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요나단은 담대히, 적극적으로 적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의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게으름의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소극적인 태도로, “믿음”을 현실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데이빗 보쉬의 책인 “길의 영성”에서 저자는 기도의 예와 함께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흔히 기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쉽게 “내가 그 일에 대해 기도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어”라고 말한다. 이것은 아주 경건하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은폐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What he is basically saying is that we claim to be leaving it to God, not because we're truly trusting Him, but because we don't want to deal with the hard reality in front of us or take a bold step forward. It feels spiritual—but it can actually be a form of passivity.

However, from Jonathan's example, we learn that living by faith does not mean running away from our responsibilities. Instead, we need to actively seek ways to live out what we believe.

Example 1: When we believe that Jesus will retur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that there is hope in the next life—eternal life with Jesus—how should this belief shape the way we live? While many people are consumed by material things, our faith can lead us not to be obsessed with or love the things of this world, but instead to live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to come.

Example 2: As God's Word tells us in Acts 20:35, when we know and believe that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and that the Lord sees and rewards all our good works—how should this belief shape the way we live? It should lead us to use our wealth and resources not for greed or selfish desires, but to love and serve others.

James 2:17 tells us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I hope and pray that today's message serves as a powerful reminder of this truth: genuine faith in the Word of God will always guide us to produce a life of faithful action as its fruit.

그가 지적하는 요점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다고 할 때, 신뢰의 의미로 맡기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지 않기에, 기도를 핑계 삼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단의 예를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는 바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세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런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쫓으며, 세상의 것을 집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삶의 허무함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다가올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도행전 20:35 절에서 말씀함과 같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며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런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물질들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함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17 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result of Jonathan's faith.

Lastly, we see the result of Jonathan's faith in verse 23: "So the Lord saved Israel that day." The clear outcome of his bold faith was that Israel was once again delivered by the hand of the Lord.

We also see how God brought greater salvation through Jesus. Just like Israel, while we are completely helpless in the face of our greatest enemy—sin and death—it is by faith alone in Jesus that God delivers us from this powerful enemy.

So, I hope that this could be an opportunity for us to examine our faith in the Lord, based on the example of Jonathan's faith.

Firstly, we saw that Jonathan's faith had content, grounded in the truth that God alone is gracious and mighty to save. Just like Jonathan's example, is your faith rooted in the understanding of who God is? That is, do you see Jesus as the Son of God, sent to this world to reveal God's grace and truth? Do you recognise Him as our ONLY Lord and Saviour, who sacrificed His life on the cross for the sins of His people?

Secondly, we saw that Jonathan's faith was a faith that went beyond all trouble and difficult circumstances. Just like this example, does your faith go beyond all your troubles? While it may seem like there is no hope in this broken world, and the guilt and shame of our sin mount up, do you believe that God alone is able to save, even when we seem completely helpless?

Thirdly, just as Jonathan's faith resulted in bold action, does your faith lead you to actively listen to and follow the teaching of Jesus?

믿음의 결과.

마지막으로 우리는 23 절에서 이런 요나단의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담대한 요나단의 믿음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주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더 크고 위대하신 구원을 나타내셨는지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런 적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이 분명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시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진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 보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둘째,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이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임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믿음인가요? 이 망가진 세상에 희망이 없고, 죄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우리가 완전히 무력해 보일 때,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셋째, 요나단의 믿음이 담대한 행동으로 이어졌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Based on these essential marks of faith, I hope this encourages us to examine our own faith in the Lord. And the more we are assured of the faith we have, the more we are humbled and moved to give thanks to God—for this faith is not from ourselves, but as Paul says in Ephesians 2:8, it is a gracious gift from God.

이러한 믿음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금 보다 귀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